

K방산의 비상, 20년의 데이터가 설계하는 정책의 나침반

방위사업청에서 국방획득 업무를 수행하며 마주한 데이터들은 단순한 수치 집합이 아니었다. 2006년 개청 이래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수많은 실무자의 열정과 우리 기업이 쏟아낸 땀방울이 숫자로 치환된 ‘역사의 기록’이다.

이제 성년이 된 우리 청의 지난 20개년(2006~2025년)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 K방산이 거둔 눈부신 성공의 원동력을 과학적으로 복기하고 나아가 방향을 찾아야 한다.

방산수출은 지속적인 국방 연구개발 투자 투자를 통한 기술 확보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기 위해 생산성을 갈고닦아 온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발자취를 정책적 지혜로 바꿔 보려 한다.

첫째, 지속적인 국방 연구개발 투자로 준비된 기초체력이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같은 외생적 충격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최근의 수출성공을 단순히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외부적 요인



옥 대철 육군소령
방위사업청 방위산업협력과

로만 치부하는 건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그간의 연구로 우리가 묵묵히 쌓아온 기술자산이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외생적 충격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기록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실증하려 한다.

둘째, 우리 방산기업들이 수출시장에 등판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수출장벽’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는 수출기업은 비수출기업에 비해 고용, 임금, 생산성 등 모든 면에서 우월한 ‘수출 프리미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 방산기업들에게도 이러한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 우수한 잠재력을 갖추고도 초기 진입장벽과 높은 매몰비용 때문에 해외시장에 도전하지 못하는 원인

은 무엇인지 실증하려고 한다. 이런 실증적 토대 위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기업의 매몰비용을 보전하고 장벽을 낮춰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돼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 투입과 성과 발생 사이의 ‘시차’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개발 착수부터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초점을 맞춘 전문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정책 투입 후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과학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정책 결정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심어 언제 거둘 수 있는지’ 정교한 정책시간표를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20개년의 방대한 기록 속에 숨겨진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구과정이 방산이란 거대한 함선이 거친 파도를 넘어 세계시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수 있도록 돕는 이정표와 나침반이 되길 소망한다.

14년 만에 다시 선 GOP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이창민 소령
육군7보병사단 상송불사조여단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임관해 첫발을 내디뎠던 곳, 소위 시절 긴장된 마음으로 마주했던 최전방의 차가운 공기는 14년이 지난 세월이 지나 다시 마주해도 여전히 매서웠다. 당시 이곳 일반전초(GOP)에서 소초장과 감시초소(GP)장, 수색중대 부중대장으로서 가파른 능선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던 기억이 난다. 지금보다 좋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조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전우애는 이후 어느 부임지에 있어도 마음 한 구석 진한 그리움과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현재는 영관장교가 돼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한 곳에서 작전과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생겨 다시 GOP대대로 오게 됐다.

돌아와 놀란 부분은 14년 전에는 육안과 청력에 의존해 불철주야 경계작전에 매진했다면 지금은 첨단 감시의 눈이 생겨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편리함을 넘어 국가적으로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고, 작전의 정교함을 높이며, 장병들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화려한 변신보다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장병들의 끈끈한 전우애와 사명감이었다.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매서운 눈빛만큼은 14년 전 곁에 있었던 전우들과 똑같았으며, 단절된 공간에서 오직 전우만을 믿고 의지하며 경계작전에 임하는 이들의 사람 냄새 나는 온기는 여전했다. 세월이 지나 사람과 장비는 바뀌어도 우리가 이곳에서 있는 이유는 절대 변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돌아온 GOP는 분명 더 스마트해졌지만,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전우들이 있었다. 과거의 나처럼 청운의 꿈을 품고 이곳을 지키는 후배 장병들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평온한 일상을 누린다.

과거 소초장, GP장으로서 현장을 발로 뛰며 지켰던 이 땅을 이제는 작전과장으로서 초급장교 때보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수호하고자 한다. 14년의 세월은 계급장을 바꿔 뵈었지만, GOP의 밤을 밝히는 장병들의 뜨거운 진심은 예나 지금이나 이 가파른 지형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곳을 먼저 거쳐 간 선배로서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육군7보병사단 멸공대대에는 장병들에게 투영하는 슬로건이 있다. ‘즐겁게 임무를 수행하면 열심히 하게 되고, 올바르게 임무를 수행하면 잘하게 된다’. 강하고 승리하는 멸공대대 대원으로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외쳐 본다.

군 생활의 더위사냥

초등학생 때는 냉장고의 ‘더위사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등굣길부터 발걸음이 가벼웠다. 빨리 집에 가 더위사냥 먹어야지! 수학 익힘책을 풀어도, 교실 앞뒤 청소를 해도 시원한 더위사냥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졌다. 한입 베어 물면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쌉싸래하니 맛있을까. 나이를 먹어 가며 더 이상 더위사냥은 그만큼의 효용을 주지 못하게 됐지만, 이를 대신하는 게 생겨났다. 중학교 때는 일주일에 3번 들어 있는 체육시간을 떠올리면 행복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앞 맥도날드 소프트콘을 먹으며 하교하는 30분이 버티게 했다. 대학생 때는 동기들과의 술 잔잔이 그 자리를 꿰찼다. 초등교사가 된 뒤에는 점심시간에 아이들과 격의 없이 주고받는 농담이 달콤했다. 그리고 26세, 뒤늦게 군인이 됐다.

일병 때는 시간이 안 간다는 선임들의 말이 청천벽력처럼 느껴졌다. 빨리 전역해야 하는데 시간이 안 가면 어떡하지. 마음을 부대 안이 아닌 밖에, 과거에 두고 살았다. 휴가를 손꼽고, 여



오상준 상병
육군3군단 특공연대

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견뎠다. 냉장고엔 과거의 기억만 가득했고, 그것들을 버릴 수 없었다. 풋살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서 매일 풋살을 했다.

바깥바람을 쐬면 기분이 좋아질까 분대의출을 나갔다. 포상휴가를 모으기 위해 특공무술을 신청했고 푸르게 명들어가며 연습했다. 야간 경계근무를 하면 상점을 쥐 지원했지만 추위에 벌벌 떨며 후회했다. 그렇게 하나둘씩 냉장고에 더위사냥이 쌓여갔다.

동기들과 이부자리에 누워 주고받던 실없는 농담들이 일과 중 떠올라 웃음 짓게 됐다. 전우들과 함께할 풋살을 생각하면 들고 있던 엔진오일통이 가벼워졌다. 분대의출 때 팝콘 모자를 쓰고 찍었던 네 컷 사진은 아직도 지갑에

있다. 특공무술을 연습하며 들었던 푸르맹맹한 명들은 무단증이 됐다. 선임과 야간 경계근무를 설 때 벌벌 떨며 나눠 썼던 핫팩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웠다.

문득 되돌아봤을 때 이미 냉장고는 가득했다. 떠올리기만 해도 살며시 웃음이 났다. 그 웃음으로, 기억으로 다음 날 아침 눈이 떠졌다.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다. 다음 날의 하루는 또 그 다음 날의 더위사냥이 됐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상병이 됐고, 병장을 앞두게 됐다. 곧 전역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소중한 기억을 냉장고에 보관한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꺼내 본다. 초등학생 때 더위사냥을 떠올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군대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더위사냥은 무엇인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생각만으로도 배시시 미소 짓게 하는 달콤쌉싸래한 더위사냥은 무엇인가. 군 생활의 냉장고를 열어 봤을 때 항상 시원한 더위사냥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알림

응모 분야: 산문, 시, 독후감, 편지

분량: 1600자 이내 (공백 포함)

응모 대상: 국군장병, 국방가족, 일반독자

응모 방법: 국방일보 홈페이지 내 ‘병영의 창 기고하기’ 배너 통해 양식 확인 후 이메일로 제출(현역 장병은 부대 정훈 계통 사전검토 필수). 증명사진(최소 1MB 크기)과 함께 채택 시 기프티콘 수령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포함. 글의 분량이 최대 1600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접수된 원고는 국방일보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인터넷 letter3753@dema.mil.kr, 인트라넷 mletter@mnd.mil

기타: ‘병영의 창’ 등에 글이 게재된 분에게는 응모한 휴대전화 기반 카키오톡으로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문자가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기입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 및 기프티콘 분실 시 재발송 불가합니다.

문의: (군)947-3713, (일반)02-2079-3713